

# 十二經別에 關한 文獻的 考察(I)

金俊杓 · 李榮宰\*

## I. 緒 論

經絡은 우리 몸의 氣血이 循環하는 通路로 認識되고 있으며, 이러한 氣血이 內로는 五臟六腑, 外로는 四肢, 九竅, 百骸 및 筋骨로 循環하면서 우리 몸을 滋養해주며 正常的으로 生命을 維持하게 해준다<sup>1)</sup>. 그러나 아직까지 經絡에 대한 明確한 機轉이나 實體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研究가 계속 進行되고 있다.

經絡의 構成은 크게 經脈과 絡脈으로 나눌 수 있다. 經脈은 十二正經과 十二經別, 그리고 奇經八脈으로 다시 나눌 수 있고, 絡脈은 十五絡脈, 絡脈, 孫絡, 浮絡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2)</sup>.

이중 十二經別 역시 經絡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새롭게 認識되고 具體化되면서 만들어진 經絡體系中的 하나이다. 그러나 十二經別은 所屬 穴位가 없어 이에 대한 認識이나 關心이 적었으며 또한 古來의 많은 醫家들이 十二經別에 대한 言及에 있어 거의 대부분 《靈樞·經別篇》에 記錄된 十二經別의 循行에 대한 說明을 주로 하였고, 그 生理的作用이나 病理的 變化 및 臨床的 應用에 대한 內容은 거의 없었다. 또한 經別의 循行方向에 있어 十二經別 大部分이 四肢에서 몸통으로 求心性을 나타내어 五俞穴의 循行方向과 같으나 十二正經의 循環方向과는 反對方向을 나타내는 部分이 있다.

이에 著者는 人體의 經絡體系에 대한 理解와 앞으로의 經絡研究에 있어 보다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土臺를 마련하고 十二經別에 대한 臨床的 活用方案을 찾아보기 위한 基本的 資料를 마련하고자, 《靈樞·經別篇》<sup>3)</sup>의 內容을 中心으로 하면서 其他 醫家들의 註와 現代書籍중의 十二經別에 관한 說明을 參考하여, 먼저 十二經別의 循行과 方向性에 대한 考察을 하여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論 및 考察

### 1. 十二經別의 意味

十二經別은 十二正經에서 別出하므로 十二經이 되고 正經의 하나이므로 十二經別이라고 命名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古代 醫家들은 經別의 命名과 認識에 있어 若干의 異見을 나타내고 있다. 隋代의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이하 太素로 簡稱)에서 “十二經別에는 正과 別이 있으며, 正은 六陽經의 別行으로 다시 腑經(本經)과 合하고, 別은 六陰經의 正經에서 別行하는 것으로 表裏의 陽經과 合하고 本來의 經으로는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름하기를 別이라고 한다<sup>5)</sup>.”고 하였다. 그러나 馬蒔는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以下 合編이라 簡稱)에서 “正은 모두 正經을 말하며 《靈樞·經脈篇》의 直行者와 相合하며, 別은 絡으로 《靈樞·經脈篇》의 支者와 相合하는 것으로, 《靈樞·經別篇》은 省略이 많이 되있는 것이다<sup>6)</sup>.”라고 하여 十二正經과 十二經別을 同一視 하였으나 이는 妥當하지 않은 것 같다. 現代의 註釋을 보면 足少陰과 足厥陰經의 두 經別만 비록 正이라고 하였지만 사실 모든 陰經의 經別은 別이라고 해야하며, 그 이유는 《靈樞》, 《太素》, 《黃帝鍼灸甲乙經》 등에서 篇名의 題目을 “經別<sup>7)</sup>”이나 “支別<sup>8)</sup>”, “正別<sup>9)</sup>” 등

2) 上海中醫學院, 鍼灸學, 上海, 中國圖書刊行社, 1985, p.4.

3) 앞으로 本文중에 나오는 十二經別의 原文은 郭靄春 編著의 《黃帝內經靈樞 校注語譯》(서울, 一中社, 1992, pp.137-141.)을 引用한다.

4)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編著, 鍼灸學(上·下), 서울, 集文堂, 1991, p.61.

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影印, 1991, p.122

6)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p.135.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鍼灸學教室

1) 李鼎 外, 經絡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

으로 정한 이유가 十二經別이라는 正經과는 다른 體系가 분명히 存在하며, 正과 別의 區分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0)11)</sup>. 또한 楊은 “足三陽經은 從頭至足하고 해당 經別은 從足向頭하며, 足三陰經은 從足至胸하며 해당 經別은 從足上行向頭하므로, 그 循行處와 方向이 크게 다르므로, 十二經脈과 十二經別을 同等하게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sup>12)</sup>.”고 하였다.

## 2. 十二經別의 循行 및 考察

十二經別의 循行에 있어 각 註家の 註와 現代書籍들의 說明을 參考하여 가장 妥當하다고 생각되는 內容을 選擇하고, 각 註家の 見解나 解釋이 相異한 部分은 考察部分에서 說明하였다.

또한 馬蒔의 註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經別에 대한 認識의 差異가 있지만, 그 循行에 대한 註에서 正經의 穴位를 많이 言及하면서 나름대로 循行部位에 대한 具體的인 位置를 說明하고 있어서 經別의 流注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部分은 馬蒔의 說明을 같이 參考하였다.

### 1) 足太陽經別

足太陽之正 別入於腦中 其一道下尻五寸 別入於肛 屬於膀胱 散之腎 循膂 當心入散. 直者 從膂上出於項 復屬於太陽 此爲一經也.

#### 【循行】

足太陽經別은 足小趾外側에서 分出하여 腦中에 이르고, 하나는 계속 上行하여 尻臀에 이르러 아래로 肛門에 入하고 계속하여 膀胱에 속하고 腎에 흩어지고 등골을 따라 上行하여 心臟部에 흩어진다. 다른 하나는 腦中에서 등골을 따라 계속 上行하여 項에 이르러 足太陽本經의 睛明穴에 歸屬한다.

#### 【考察】

經別의 別出處에 대한 既存의 說明은 大部分이 肘膝關節 以上の 部位에서 別出한다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正確한 部位나 別出處에 대한 說明이 充分하지 못하다. 그리고 十二經別의 循行方向이 모두 四肢에서 體腔으로 求心性 方向을 나타내어, 五俞穴에서 手陰經과 足陽經의 循行方向과 五俞穴의 方向이 上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問題를 가진

다.

이에 대해서 參考가 되는 註를 살펴보면 楊은 “足三陽大經 從頭至足 其正別則從足向頭 其別皆從足指大經終處 別而上行 并至其出處而論屬合也, 足三陰大經從足至胸 其正別則從足上行向頭 亦至其出處而言屬合<sup>13)</sup>”이라고 하여 足三陰·足三陽 經別의 別出處를 本經의 終處部라고 하였다. 또한 馬는 “此節論 則自下并榮輸經合 而上行也. 故言足陽明之正 由足次指上足跗 循行外廉<sup>14)</sup> ……”라고 하여 經別이 五俞穴을 따라 上行한다고 하였다. 循行過程上 十二正經의 終處部에서 經別이 出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되어 本論에서는 十二經別의 別出處를 本經의 終處部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研究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足太陽經別의 갈래에 있어서 腦中을 中心으로 本經의 終處部에서 두갈래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腦中에서 위로 두갈래가 形成되는지가 問題가 된다. 楊은 “足太陽經別은 足小趾外側에서 二道가 分出하여, 一道는 上行하여 腦中에 이르고, 다른一道는 上行하여 尻臀에 이르러 아래로 肛門에 入한다. 계속하여 腎·膀胱을 지나 등골을 따라 上行하여 하나는 心臟部에 位置하고, 다른 하나는 계속 등골을 따라 上行하여 項에 이르러 足太陽本經에 歸屬한다<sup>15)</sup>.”고 하여, 別出處에서 이미 두갈래의 分支가 形成된 것으로 認識하였다. 그러나 經別의 循行部位가 本經의 循行部位와 一致내지는 近接한 部分이 大部分이고, 足太陽經은 背部에서 두갈래가 形成이 되어 다리로 下行하다가 腦部의 委中穴에서 하나로 합쳐져 足으로 下行한다<sup>16)17)</sup>.

8) 黃龍祥, 黃帝鍼灸甲乙經(新校本),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pp.80.

9) 楊上善, 上揭書, p.121.

10) 黃龍祥, 上揭書, pp.104-105.

11) 鄧良月 主編, 中國鍼灸經絡通鑿, 北京, 青島出版社, 1996, p.284.

12) 楊上善, 上揭書, p.123.

13) 楊上善, 上揭書, p.123.

14) 馬蒔·張志聰, 上揭書, p.134.

15) 楊上善, 上揭書, p.122.

16) 成樂箕, 現代鍼灸學, 서울, 杏林出版, 1987, p.266.

17) 李鼎 外, 經絡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49.

7)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靈樞 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2, p.137.

그러므로 圖中에서 한갈래는 肛門, 腎, 膀胱, 心까지 循行하고, 다른 한 갈래는 圖中에서 背部를 계속 上行하여 頭部로 가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馬는 “등골을 따라 直行하는 部位는 膀胱經 第一線의 部位라고 하였으며, 頭部로 上行한 經別은 睛明穴에서 本經과 合한다<sup>18)</sup>.”고 하여 具體的인 穴位를 言及하였다. 이 部分은 계속하여 十二經別의 臨床上의 應用에 대한 研究에 있어 參考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2) 足少陰經別

足少陰之正 至圖中 別走太陽 而合上至腎 當十四佳頁 出屬帶脈, 直者 繫舌本 復出於項 合於太陽 此爲一合. 成以諸陰之別 皆爲正也.

【循行】

足少陰經別은 足(이 部分도 本經의 終處部로 생각됨)에서 別出하여 圖中에서 足太陽經別과 一次로 相合한다. 계속해서 上行하여 腎에 이르고, 十四椎(제2腰椎部)旁으로 出하여 帶脈에 속하고, 계속 위로 直行하여 舌根에 聯系되고, 다시 項部로 나와 足太陽經別과 2차로 合한다.

【考察】

別出處에 대해서 馬는 “足少陰腎經之正 由湧泉至內踝下 至於圖中<sup>19)</sup>……”이라고 하여 別出處를 湧泉이라고 하였다. 또한 腎에서 十四椎旁, 즉 腎俞穴이 있는 部位로 出하면서 帶脈에 속하여 腎과 腎俞穴 및 婦人科 疾患에 있어 臨床上 腎과 帶脈과의 關聯性을 示唆하고 있다.

3) 足少陽經別

足少陽之正 繞脾 入毛際 合於厥陰. 別者 入季脇之間 循胸裏 屬膽 散之上肝貫心 以上挾咽 出頤頰中 散於面 繫目系 合少陽於外皆也.

【循行】

足少陽經別은 足少陽本經의 終處部에서 別出하고 上行하여 髀部(大腿前面)에 이르고, 이곳을 돌아 外陰部에 進入하고 足厥陰經別과 會合한다. 여기서 經別의 分支는 季脇之間에서 胸腔안으로 入하여 膽에 歸屬하고 肝으로 hole지며, 위로 心を 貫通하고 食道를 끼고서 아래턱 中間으로 淺出하여 面部에 散布되고 目系와 聯系되어 目外眥의 瞳

子膠에서 足少陽正經에 歸屬한다.

【考察】

馬는 “아래턱 中間에서 頰車部位를 지나 面部에 散한다<sup>20)</sup>.”고 하였다.

本文중의 ‘散之上肝貫心’은 前後文의 例에 根據하여 ‘散之肝 上貫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sup>21)22)23)</sup>.

4) 足厥陰經別

足厥陰之正 別附上 上至毛際 合於少陽 與別俱行 此爲二合也.

【循行】

足厥陰經別은 足背上으로 出하여 上行하고 外陰部에 이르러 足少陽經別과 會合하여 함께 行한다.

【考察】

足厥陰經別은 體內 循行部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外陰部에서 足少陽經別과 會合하여 竝行한다는 端緒 하나를 가지고 類推해보면, 足少陽經別도 역시 膽과 肝, 心を 지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疑問으로 남겨둘 것은 두 經別이 合하여 俱行하는 것이 어떠한 狀態를 이루어 循行하는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각 經別은 該當 臟腑와 生理的으로 本經과 該當 臟腑와의 關係를 더욱 強하게 해주는 役割을 하므로, 여기서 足厥陰經別의 臟腑循行 部分이 나타나 있지 않고 足少陽經別과 함께 行한다고만 나타나 있어, 完全히 하나로 되어 循行한다면 그러한 經別의 役割이 生理的으로 잘 發揮될까 하는 疑問과, 만일 두개의 經別이 거의 같은 部位를 密接하게 나란히 간다면 이것은 어떠한 狀態를 나타내는가 하는 疑問이 남는다. 이 部分은 經絡의 存在와 經絡循行의 生理的 現狀 및 實體의 現代的 研究에 있어 參考가 되며, 많은 研究가 進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足陽明經別

足陽明之正 上至脾 入於腹裏 屬胃 散之脾 上通

19) 馬蒔·張志聰, 上揭書, p.133.

20) 馬蒔·張志聰, 上揭書, p.133.

21) 李鼎 外, 經絡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68.

22) 王雪苔, 中國鍼灸大全,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95, p.98.

23) 鄧良月 主編, 中國鍼灸經絡通鑿, 北京, 青島出版社, 1996, p.683.

18) 馬蒔·張志聰, 上揭書, p.133.

於心上循咽 出於口 上頰頰 還繫目系 合於陽明也.

【循行】

足陽明經別은 足跗上으로 出하여 上行하고 髀部에 이르러 계속 上行하여 腹裏에 入하고, 胃에 屬하며 脾로 散布한다. 위로 心을 通過하고 食道에 붙어서 口腔으로 出하고, 위로 頰頰(鼻根과 眼眶下部)에 到達하고 目系를 돌아 足陽明經에 會合한다.

【考察】

馬의 註에서 “故言足陽明之正 由足次指上足跗 循行外廉 入膝腘 低伏兔 以上髀關 至氣衝 入腹裏 屬胃絡脾 上通於心 入缺盆 上循喉嚨 出於口 上頰頰 還繫目系 合於足陽明之經隧也<sup>24)</sup>.”에 나타난 穴位를 보면 伏兔, 髀關, 氣衝 등의 3개가 言及되어 있다.

6) 足太陰經別

足太陰之正 上至脾 合於陽明 與別俱行 上結於咽 貫舌中 此爲三合也.

【循行】

足太陰經別은 足에서 分出하고, 上行하여 髀部에 이르러 足陽明經別과 相合하여 并行하고 위로 咽喉에 結하고 舌本을 貫通한다.

【考察】

여기에는 구체적인 經別의 別出處가 言及되어 있지 않다. 馬는 髀部를 髀關穴로 具體적인 言及을 하였고<sup>25)</sup>, 여기서 足陽明經別과 合을 이룬다고 하였다.

7) 手太陽經別

手太陽之正 指地別於肩解 入腋走心 繫小腸也.

【循行】

手太陽經別은 手에서 別出하여 肩關節部에 이르고 下行하여 心으로 가고 小腸을 엮어낸다.

【考察】

本文중의 ‘指地’에 대한 解釋에 있어 楊은 “手之六經 唯此一經下行 余并上行向頭<sup>26)</sup>”라고 하였고, 張은 “指地者 地屬陰 居天之內. 手太陽內行之脈 別於肩解入腋走心 繫於小腸 皆自上而下 自外而內 故曰指地<sup>27)</sup>”라고 하여 手太陽經別이 肩解(즉, 肩關節)에서 心으로 下行하므로 指地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各 註家들이 手太陽經別만 下行한다고 하였으나 循行方向을 보면 手少陽經別도 下行하

로 이 說明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가지 생각할 부분은 手太陽經別이 本經과 合한다는 內容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考察은 手少陰經別에서 다루기로 한다.

8) 手少陰經別

手少陰之正 別入於淵腋兩筋之間 屬於心 上走喉嚨 出於面 合目內眥 此爲四合也.

【循行】

手少陰經別은 手少陰心經의 終處部에서 別出하고 上行하여 淵液部の 兩筋사이에서 胸內로 入하여 心에 分布되고, 喉嚨을 따라 上行하여 外로 面部로 出하여 目內眥에서 手太陽本經과 合한다.

【考察】

別出處에 대한 註家들의 位置가 조금씩 틀리다. 楊은 “上行하여 泉腋(淵液穴)부위에 入한다<sup>28)</sup>”고 하여 一貫되게 本經의 終處部에서 別出한다고 하였고, 張은 “淵液穴에서 시작한다<sup>29)</sup>”고 하였다. 馬는 “其直者 從心系卻上肺 別入於腋下之淵液穴 屬於心 上走喉嚨 出於面 合目內眥 此爲四合也<sup>30)</sup>”라고 하여, 正經의 循行 中心系에서 肺로 가고, 여기서 正經의 支脈은 腋下로 出하여 膻內後廉으로 가고, 經別은 淵液穴 部位로 가서 다시 心에 屬하고 위로 喉嚨으로 간다고 하여 淵液穴 部位에서 經別의 別出이 시작하는 것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別出處를 淵液部位로 보면 馬蔣가 主張한 바와 같이 經別이 概念이 絡의 概念으로, 正經의 支脈으로서의 性格이 강해지므로 別出處를 淵液으로 보는 것은 經別의 概念上 一貫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太素》에서 上行하여 泉腋에 入한다고 言及한 것으로 類推해 보면 다른 經別과 같이 心經의 終處部에서 別出한다고 보는 것이 더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가지 注目할 部分은 手太陽經別과 手少陰經別의 會合하는 部位가 本文중에 없고, 또한 手少陰經別이 바로 表裏關係에 있는 經別의 本經

25) 馬蔣·張志聰, 上揭書, p.134.

26) 楊上善, 上揭書, p.124.

27)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58.

28) 楊上善, 上揭書, p.124.

29) 張介賓, 上揭書, p.158.

30) 馬蔣·張志聰, 上揭書, p.135.

24) 馬蔣·張志聰, 上揭書, p.134.

에 습한다는 점이다. 이점은 經別의 作用中 心臟과 經別과의 關聯性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心은 君主之官으로서 神明이 出하며 人體 五臟六腑의 中心이 되고, 氣血이 循環하는 通路인 經絡體系도 역시 心臟이 차지하는 役割과 作用이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그러므로 陰經別인 手少陰經別이 직접 手太陽本經과 合하고, 手太陽經別은 走心, 즉 心을 거치면서 여기서 手少陰經別과 相合하여 上으로 本經의 目內眥에서 合한다고 推測할 수 있다.

9) 手少陽經別

手少陽之正 指天別於巔 入缺盆 下走三焦 散於胸中也.

【循行】

手少陽經別은 手에서 別出하여 缺盆으로 入하고 上·中·下 三焦를 지나면서 胸中에 散布된다.

【考察】

本文중의 '指天'에 있어서 古代 註家들도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 것 같다. 즉, 楊은《太素》에서 "天 上也, 手少陽之正 提□上巔 爲指天也<sup>32)</sup>."라고 하였으나 □의 脫字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고, 馬는 "正經에서의 支脈이 胸中에서 別支하여 巔으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 指天이라고 한다<sup>33)</sup>고 하였으며, 張은 "少陽 初陽也 從陰而生 自下而上 故曰 指天也<sup>34)</sup>"라고 하여 少陽의 陰陽의 特徵을 가지고 上升하는 의미를 살려 指天이라고 하였다. 現代에 와서 藺은 手臂를 上舉하여 手指가 天을 가리킬 때 手少陽經別의 別出處는 巔頂과 서로 平行이 되는 手少陽三焦經의 部位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經別과 心의 關係에 있어 王은 "本文 中の '散於胸中'에서 胸中은 心을 包括한다<sup>35)</sup>고" 하였다.

그리고 合에 있어 手少陽經別이 會合하는 部位가 없고, 手少陽·手太陽經別과 마찬가지로 手厥陰經別이 三焦를 지나면서 完骨部로 淺出하여 手少陽本經과 合한다. 이는 心과 心包를 血脈을 主하고, 神明을 다스리는 하나의 心으로 보았기 때 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10) 手厥陰經別

手心主之正 別下淵腋三寸 入胸中 別屬三焦 出循

喉嚨 出耳後 合少陽完骨之下 此爲五合也.

【循行】

手厥陰經別은 手에서 즉 本經의 終處部에서 上行하여 掖(腋)에 이르러 腋下 3寸의 淵液部에서 胸中에 入하고 三焦에 歸屬한다. 위로 喉嚨을 돌아 耳後方의 完骨部로 淺出하여 手少陽本經과 合한다.

【循行】

心과의 連繫는 역시 '入胸中'에서 그 根據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合은 手少陽經別에서 說明하였다.

11) 手陽明經別

手陽明之正 從手循膺乳 別於肩髃 入柱骨 下走大腸 屬於肺 上循喉嚨 出缺盆 合於陽明也.

【循行】

手陽明經別은 手에서 別出하고 上行하여 膺乳(側胸部와 乳部의 사이)를 돌아 肩髃部位(肩胛骨 肩峰의 外側方으로 삼각근 上緣의 中央部分에 위치)를 지나 柱骨(頸椎)部에서 體腔으로 進入하여 아래로 大腸에 도달하고 위로 肺에 屬하며 上으로 喉嚨을 돌아 缺盆部로 淺出하여 手陽明本經에 歸合하여 頭部로 올라간다.

【考察】

本文중의 '入柱骨'에 대해서 王은 第7頸椎處인 大椎穴 部位<sup>36)</sup>라고 하였다. 大椎는 手陽經과 督脈이 모이는 곳이다.

12) 手太陰經別

手太陰之正 別入淵腋少陰之前 入走肺 散之太陽 上出缺盆 循喉嚨 復合陽明 此六合也.

【循行】

手太陰經別은 手에서 上行하여 掖下 3寸 淵腋의 部位로 進入하고 手少陰經別의 앞을 지나 肺로 入하고 大腸에서 散한다. 다시 上行하여 缺盆處로 淺出하고 여기서 手陽明經別과 會合하고 계속 上行하여 喉嚨을 돌아 手陽明經別에 다시 合한다.

【考察】

32) 楊上善, 上揭書, p.124.

33) 馬蒔·張志聰, 上揭書, p.135.

34) 馬蒔·張志聰, 上揭書, p.135.

35) 藺雲桂, 經絡圖說,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91, p.55.

36) 王雪苔, 上揭書, p.95.

31) 王雪苔, 中國鍼灸大全,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95, p.94.

本文중의 '複合陽明'에 대해서 古代 註家들의 註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서 陽經別이 一合과 二合을 하였는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陽經別의 循行部位에 있어 缺盆處와 喉嚨을 모두 지나므로 이 두 部分에서 合한다고 推測된다.

### 3. 循行方向에 대한 考察

經絡系統의 循行方向을 보면 求心性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다. 최근에 發見된 馬王堆 帛書 및 張家山 醫書등의 經脈循行이 그러하고, 五臟穴의 循行方向 및 標本·根結·氣街 등이 모두 求心性을 指向하고 있다.

十二經別도 마찬가지로 十二正經의 循環方向과는 상관없이 모두 四肢에서 五臟六腑가 있는 몸통부분을 향하고 있다. 어떠한 原理나 生理的인 理由에 의해서 이러한 方向의 系統이 생겼는가에 대한 說明이 古代醫書에는 많이 나와있지 않다. 특히 十二經別에 대한 研究나 考察은 거의 全無하며, 該當所屬穴이 없어 臨床에서도 거의 그 存在에 대한 價値나 認識이 不足한 상태이다.

즉 循行方向에 대한 問題에 있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은 어떠한 理由로 四肢末端에서 循行이 始作되며, 循行하는 本質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經絡系統이 形成된 根據를 보면, 金 등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經絡系統의 提出은 주로 古人들이 血脈系統의 解剖實驗에 根據할 뿐 아니라, 體表面에 나타나 눈으로 볼 수 있는 向心性分布인 靜脈現狀의 觀察에 基礎를 두기도 하였고, 生活과 醫療實踐 중에서 動脈에 대한 意識에 基礎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血脈사이의 走向, 分布, 數量과 臟器와의 具體的인 聯關關係를 明確하게 理解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古代 醫家들은 解剖와 鍼灸臨床實踐을 통하여 經脈間의 關係 및 血管과 內臟의 聯關關係를 理解하였다. 다른 方面으로 當時에 盛行한 古代哲學, 즉 天人相應, 圓道, 終始 등과 같은 學說의 도움을 빌고 다시 自然界의 江河現象과 聯關시켰다. 또한 鍼灸實踐中에서 發見한 感傳路線과 解剖에서 보이는 血管系統은 古老의 十二經脈으로는 概括할 수 없으므로 다시 奇經八脈이나 十二經別 등을 模倣해냈다<sup>37)</sup>."고 하였다.

즉 經絡體系가 《內經》에 이르러 그 틀이 갖추어지면서, 奇經八脈·十五絡脈·十二經別·十二經筋 등 보다 세련되고 복잡한 형태를 띠면서, 이를 통해 經絡의 生理的 機轉을 보다 體系의 理解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五俞穴이나 十二經別 등의 循行方向과 十二正經의 '周而復始 如環無端'하는 循環體系에 있어 그 方向性에 많은 疑問이 생겨났다. 즉 五俞穴이나 十二經別 모두 해당 正經의 循行方向과는 상관없이 모두 四肢에서 몸통을 향하는 求心性 方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먼저 五俞穴의 方向性에 대해서 살펴보면, 安 등은 "五俞穴이 四肢末端에서 起하는 것은 元氣와의 關係로 解釋되며, 이를 標本根結理論과 附合시키면 四肢末端의 井穴은 根穴이며 脈氣가 根으로부터 結에, 本으로부터 標에 각각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經脈의 上下關係에서 四肢를 本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고 하여, 標本根結理論으로 方向性을 理解하였다. 또한 澤은 이에 대해서 3가지 가정을 하였다. 그 內容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로 十二經脈의 標本根結理論과의 關係속에서 보면, 十二經의 本은 모두 四肢의 下端에 位置하고 根은 四肢末端의 井穴이 되며, 五俞穴은 本과 根의 部位에서 始作되며 一定한 順序에 의해 上의 方向으로 配列된다. 六經根結에서 述하고 있는 根溜注入에서는 그 根은 井穴을 뜻하며, 溜는 原穴, 注는 經穴 혹은 合穴을 말한다. 그러므로 五俞穴의 分布와 配列의 方法은 標本根結理論을 具體的으로 表現한 것이다. 둘째로 衛氣의 運行과의 關係속에서 보면, 《靈樞·邪客篇》에서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라고 句節과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發腠理 清陽實四肢"라는 句節을 根據로 衛氣의 運行과 分布의 方法은 基本的으로 五俞穴의 根溜注入의 配列方法에 相當한다. 셋째로 十二經脈의 別途 循行路線을 가정해보면, 《內經》에는 十二經脈의 流注에 관해서 相反된 두가지의 路線이 記錄되어 있다. 즉 《靈樞·經脈篇》과 《靈樞·本輸篇》의 內容이 方向性에 있어 서로 相反되어 있다. 그러

37) 金丁雨·金吉菴, 臟象과 經絡學說과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II), 서울, 東醫生理學會誌, vol.8, 1993, p.4.

므로 經絡의 發展過程중에서 두가지의 循行路線이 共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38)</sup>.”고 說明하고 있다. 이와같이 먼저 五腧穴의 循行方向에 대해 살펴보았다. 五腧穴은 鍼灸臨床에서 많이 活用되는 것으로 繼續的인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金은 “五腧穴에는 經氣의 흐름과는 다른 五腧穴만의 독특한 氣의 흐름이 있다고 思料되며, 《難經·六十五難》에서 言及한 ‘陽氣入藏’에 대해서 經絡의 循行方向과 一致하게 흐르는 것은 營氣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陽氣가 營氣는 아니며, 이는 다른 氣(陽氣나 衛氣)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계속 研究가 進行되어야 한다<sup>39)</sup>.”고 하여, 五腧穴을 흐르는 實體에 대해서 衛氣를 提示하였다.

十二經別의 循行에 있어서 馬蒔는 “此節論則自下并榮輸經合而上行也。故言足陽明之正由足次指上足跗 循行外廉<sup>40)</sup>……”라고 하여 經別이 五腧穴을 따라 上行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楊이 “足三陽大經 從頭至足 其正別則從足向頭 其別皆從足指大經終處 別而上行 并至其出處而論屬合也, 足三陰大經從足至胸 其正別則從足上行向頭 亦至其出處而言屬合<sup>41)</sup>”이라고 한 內容과 매우 一致한다고 보여진다. 즉 本經의 終處部 즉, 五腧穴의 井穴에서 經別이 別出하여 上行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安 등은 外國(日本)에서 각 表裏經의 原·絡·募穴을 十二經別의 治療에 應用하였다<sup>42)</sup>는 報告를 하였다.

위와같이 衛氣와 五腧穴과 十二經別 사이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關聯性을 가지는 것 같다. 즉 五腧穴의 循行實體가 衛氣라는 것<sup>43)44)</sup>과 十二經別이 正經의 終處部에서 別出하며<sup>45)</sup>, 五腧穴中の 原穴이나 四肢部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絡穴이 十二經別의 治療에 應用된다<sup>46)</sup>는 內容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朴은 “經絡을 통하여 體表에 보내진 氣血은 단순히 消耗되는 것이 아니라 消耗됨과 同時에 보다 精微한 氣運을 얻어내는 役割을 한다. 이 精微한 氣運이 다시 經絡을 타고 臟腑로 돌아오는 것이다<sup>47)</sup>.”라고 하여 經絡의 回歸性을 말하였고, 이와 類似하게 등은 “사람은

穀食을 통해 氣를 받아 營衛를 生하며, 營氣는 脈中을 행하며 營養物質을 體內에 輸送하는 作用을 하며, 衛氣는 脈外를 행하며 老廢物을 排泄하고 疾病을 防禦하는 機能을 한다<sup>48)</sup>.”고 하였다.

이와같이 아직 衛氣의 作用이나 循行過程 및 十二經別에 대한 生理的 機轉에 대한 研究가 不足한 實情이다. 앞으로 이 部分은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할 것은 正經과 기타 五腧穴이나 十二經別 등의 循行方向에 있어 正經과 反對의 方向性을 가지는 것에 대해 역지로 十二正經의 循行方向에 맞추어 그 機轉을 解釋하는데는 많은 무리가 있으며, 經絡의 發展展開過程에서 多樣한 經絡體系가 形成되면서 어떤 部分은 十二正經과 一致하고, 어떤 部分은 다른 體系를 形成하였고, 어떤 部分은 다른 體系지만 十二正經의 概念속에서 說明이 되어왔다고 생각이 된다.

이상과 같이 十二經別의 循行과 方向性에 관해 考察해 보았다. 張 등은 十二經別 뿐만 아니라 모든 經絡系統의 循行에 관한 研究는 앞으로 客觀的인 經絡研究에 있어 生命體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現象인 經絡에서 氣의 흐름을 把握하여 客觀化

39) 金善鎬, 《黃帝八十一難經》중 腧穴篇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1997, p.19, 34.

40) 馬蒔·張志聰, 上揭書, p.134.

41) 楊上善, 上揭書, p.122.

42) 安昌範·金吉萱, 標本·根結·氣街·五腧穴과 經絡元氣와의 關係에 관한 考察, 慶州, 論文集, vol(9), 1990, p.472.

43) 澤井万全, 五輸穴の問題點に關する古典的 考察(1), 東京, 醫道の日本社, 1995, pp.141~143.

44) 金善鎬, 《黃帝八十一難經》중 腧穴篇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1997, p.19, 34.

45) 楊上善, 上揭書, p.122.

46) 安昌範·金吉萱, 標本·根結·氣街·五腧穴과 經絡元氣와의 關係에 관한 考察, 慶州, 論文集, vol(9), 1990, p.472.

47) 朴贊國, 한의학특강, 서울, 한뜻출판사, 1995, p.151.

48) 史方奇 外 2人, 中醫優生長壽法,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8, p.88.

38) 澤井万全, 五輸穴の問題點に關する古典的 考察(1), 東京, 醫道の日本社, 1995, pp.141~143.

된 數値로 定量化하여 提示하는 研究가 된다<sup>49)</sup>고 하여, 經絡의 客觀的인 研究에 있어 經絡系統에 대한 循行의 研究가 必要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經絡研究에 있어 보다 多樣하고 正確한 循行에 대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思料되며 古典에 나타난 經絡의 흐름(循行方向)에 대한 考察이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十二經別의 循行과 十二正經 및 奇經八脈과의 關係 및 十二經別에 대한 生理的 作用이나 臨床的 活用까지 繼續的인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 III. 結 論

十二經別의 循行과 方向性에 대해서 《靈樞·經別篇》에 대한 각 註家의 內容과 現代書籍중의 內容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靈樞·經別篇》에 나타난 正, 別은 陽經別은 正, 陰經別은 別이라고 區分하여 稱한 것으로, 本經으로의 歸함에 差異가 있다.

2. 十二經別의 別出處는 해당 本經의 終處部, 즉 井穴에서 別出한다고 볼 수 있다.

3. 足太陽經別은 足小趾外側에서 分出하여 膕中에 이르고, 하나는 계속 上行하여 尻臀에 이르러 아래로 肛門에 入하고 계속하여 膀胱에 속하고 腎에 흠어지고 등골을 따라 上行하여 心臟部에 흠어진다. 다른 하나는 膕中에서 등골을 따라 계속 上行하여 項에 이르러 足太陽本經의 睛明穴에 歸屬한다.

4. 足少陰經別은 足(이 부분도 本經의 終處部로 생각됨)에서 別出하여 膕中에서 足太陽經別과 一次로 相合한다. 계속해서 上行하여 腎에 이르고, 十四椎(제2腰椎部)旁으로 出하여 帶脈에 속하고, 계속 위로 直行하여 舌根에 聯系되고, 다시 項部로 나와 足太陽經別과 2차로 合한다.

5. 足少陽經別은 足少陽本經의 終處部에서 別出하고 上行하여 髀部(大腿前面)에 이르고, 이곳을 돌아 外陰部에 進入하고 足厥陰經別과 會合한다. 여기서 經別의 分支는 季脇之間에서 胸腔안으로 入하여 膽에 歸屬하고 肝으로 흠어지며, 위로 心

을 貫通하고 食道를 끼고서 아래턱 中間으로 淺出하여 面部에 散布되고 目系와 聯系되어 目外眥의 瞳子膠에서 足少陽正經에 歸屬한다.

6. 足厥陰經別은 足背上으로 出하여 上行하고 外陰部에 이르러 足少陽經別과 會合하여 함께 行한다.

7. 足陽明經別은 足附上으로 出하여 上行하고 髀部에 이르러 계속 上行하여 腹裏에 入하고, 胃에 屬하며 脾로 散布한다. 위로 心을 通過하고 食道에 붙어서 口腔으로 出하고, 위로 頰頰(鼻根과 眼眶下部)에 到達하고 目系를 돌아 足陽明經에 會合한다.

8. 足太陰經別은 足에서 分出하고, 上行하여 髀部에 이르러 足陽明經別과 相合하여 并行하고 위로 咽喉에 結하고 舌本을 貫通한다.

9. 手太陽經別은 手에서 別出하여 肩關節部에 이르고 下行하여 心으로 가고 小腸을 엮어댄다.

10. 手少陰經別은 手少陰心經의 終處部에서 別出하고 上行하여 淵液部의 兩筋사이에서 胸內로 入하여 心에 分布되고, 喉嚨을 따라 上行하여 外로 面部로 出하여 目內眥에서 手太陽本經과 合한다.

11. 手少陽經別은 手에서 別出하여 缺盆으로 入하고 上·中·下 三焦를 지나면서 胸中에 散布된다.

12. 手厥陰經別은 手에서 즉 本經의 終處部에서 上行하여 掖(腋)에 이르러 腋下 3寸의 淵液部에서 胸中에 入하고 三焦에 歸屬한다. 위로 喉嚨을 돌아 耳後方의 完骨部로 淺出하여 手少陽本經과 合한다.

13. 手陽明經別은 手에서 別出하고 上行하여 膺乳(側胸部와 乳部의 사이)를 돌아 肩髃部位(肩胛骨 肩峰의 外側方으로 삼각근 上緣의 中央部分에 위치)를 지나 柱骨(頸椎)부에서 體腔으로 進入하여 아래로 大腸에 도달하고 위로 肺에 屬하며 上으로 喉嚨을 돌아 缺盆部로 淺出하여 手陽明本經에 歸合하여 頭部로 올라간다.

14. 手太陰經別은 手에서 上行하여 掖下 3寸 淵液의 部位로 進入하고 手少陰經別의 앞을 지나 肺로 入하고 大腸에서 散한다. 다시 上行하여 缺盆處로 淺出하고 여기서 手陽明經別과 會合하고 계속 上行하여 喉嚨을 돌아 手陽明經別에 다시 合한다.

49) 張敬善 外 2人, 經氣探知裝置에 관한 研究, 서울, 東醫生理學會誌, 1996, vol:11(2), p.37.



다.

15. 十二經別이 所屬臟腑와 心을 거쳐 頭(腦)로 가는 循行은 經絡系統과 頭腦活動과의 密接한 關聯性을 提示하고 있다.

16. 十二經別이 循行하는 部位는 十二正經의 循行部位와 많은 部分이 一致하거나 近接해 있었다.

17. 十二經別과 같이 循行方向에 있어 求心性을 갖는 五俞穴과 衛氣와는 密接한 關聯性이 있다고 推測되며, 앞으로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17. 安昌範, 金吉奎: 標本·根結·氣街·五俞穴과 經絡元氣와의 關係에 關한 考察, 慶州, 論文集, vol.9, 1990.

18. 澤井万全: 五輸穴の問題點に關する古典的 考察(1), 東京, 醫道の日本社, 1995.

19. 金善鎬: <黃帝八十一難經>중 俞穴篇에 關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1997.

#### IV. 參考文獻

1. 李鼎 外: 經絡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2. 上海中醫學院: 鍼灸學, 上海, 中國圖書刊行社, 1985.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4.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5. 郭霽春 編著: 黃帝內經靈樞 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2.

6.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7. 鄧良月 主編: 中國鍼灸經絡通覽, 北京, 青島出版社, 1996.

8. 成樂箕: 現代鍼灸學, 서울, 杏林出版, 1987.

9. 王雪苔: 中國鍼灸大全,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95.

10.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1. 蘭雲桂: 經絡圖說,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91.

12. 朴贊國: 한의학특강, 서울, 한뜻출판사, 1995.

13.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敎室, 鍼灸學(上·下), 서울, 集文堂, 1991.

14. 金丁雨, 金吉奎: 臟象과 經絡學說과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II), 서울, 東醫生理學會誌, vol.8, 1993.

15. 史方奇 外 2人: 中醫優生長壽法,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8.

16. 張敬善 外 2人: 經氣探知裝置에 關한 研究, 서울, 東醫生理學會誌, 1996, vol:11(2).